





↑ BIB전시가 열리고 있는 Dom umenia의 전경



↑ 한국의 작가 14명의 그림책과 그림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 모습



↑ 2층에 마련한 저의 전시장



↑ 2013년 BIB심사위원단과 BIB의장들과의 만남

이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모두 10명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연구자 등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사기간은 4일로 총 5라운드에 걸쳐 1명의 그랑프리과 5명의 황금사과상, 5명의 금패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는 각자 그림을 보거나, 함께 전시장을 돌면서 같이 그림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4일 동안이나 진행되는 심사이기에 심사위원 서로가 지칠 때면, BIB 선정은 젊은 작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며 서로를 북돋웠습니다.



BIB 의장이 "Who vote?" 하고 그림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각자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은 거수를 통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많은 득표수를 얻은 그림책이 최종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 심사가 이루어졌던 회의장소의 모습

전면 유리에 붙여진, 제 그림이 있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 BIB에서 처음 뵈신 신동준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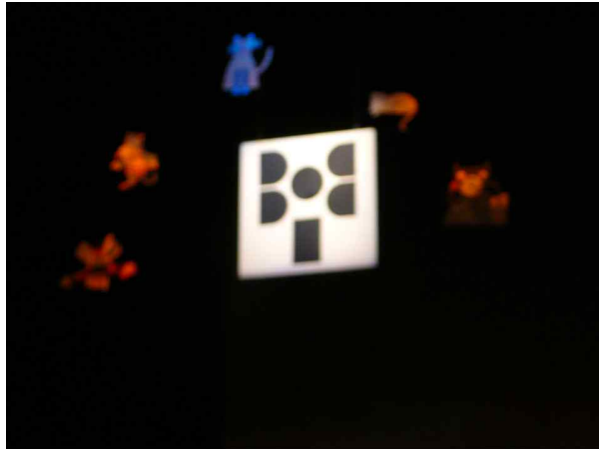
신동준 선생님은 저에게 맥주도 많이 사주시고 좋은 말씀도 더불어 해주셨습니다.



↑ BIB 오프닝이 열리는 구국립극장의 모습

BIB 오프닝은 심사가 끝나고 이틀 뒤 저녁에 막을 열었습니다.





↑ BIB 오프닝의 모습



↑ 어린이심사위원상의 이기훈 선생님 대리 수상

BIB 어린이 심사단(BIB Children's Jury)이 뽑은 최고의 그림책상 수상자 이기훈 선생님을 대신하여 수상. 상은 어린이 심사단들이 직접 만든 유리그릇. 엄청 예쁘고 엄청 무거웠습니다^^



☞ 황금사과상의 노인경 선생님을 대신하여 수상



☞ 슬로바키아의 문화부장관님과 사진 한 컷



☞ 브라티슬라바 성

BIB에서 그랑프리(Grand Prix)를 받게 되면 2년 뒤에 열리는 BIB의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는 것이 46년간 이어온 BIB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림책을 한 권밖에 내지 않은 신인 작가지만 2011년 그랑프리를 수상한 덕에 2013년 BIB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총 열 명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림책 작가, 큐레이터, 출판사, 편집장, 화가, 교수 등 다른 모습으로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엔날레가 시작하기 5일전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하여 49개국에서 온 그림책 446권 (2344개의 그림)을 4일에 걸쳐 심사했습니다. 심사는 총 5라운드로 이루어졌고 10명이 함께 그림과 그림책을 보며 투표와 토론을 통해 마지막 라운드에는 그랑프리(Grand Prix) 1명, 황금사과상(Golden Apple Prix) 5명, 금패상(Plaque Prix) 5명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BIB 상은 작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한다고 서로 다짐을 하고 각자의 눈으로 그림과 그림책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심사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신이 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그림책을 마주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스타일을 뛰어넘어 가슴이 쿵쿵거리며 ‘나는 저렇게 왜 못 그렸을까’ 하는 질투심이 들다가도 너무 재미있어 혼자 보며 깔깔대기도 했습니다. 심사 도중에도 그림의 곳곳을 사진을 찍곤 해서 다른 심사위원들이 ‘Bad student’라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2013 BIB 수상작들을 보면 알 수 있듯, 2등 격이라 할 수 있는 황금사과상 5명 중 한중일 작가가 4명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3등 격인 금패상은 유럽인들의 차지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대부분의 그림책이 1라운드를 통과할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거듭되고 토론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그림은 모범생의 그림일 뿐 더 이상 새롭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그림일지라도 유럽인의 감성과 표현은 세계 여러 나라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시아의 국가의 경우, 칼리그래피(calligraphy)나 여백이 많은 그림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고 독창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중 이제 시작 단계인 중국과 인지도가 높은 일본의 것보다 우리나라의 그림책과 작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였지만, 그림책을 통한 소통의 경험이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거름이 될 것입니다.

‘BIB 뭐 별거 있어?’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전시장은 한산했고, 사람들을 끌기 위한 이벤트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경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볼로냐 어린이 도서전과 달리, 작가의 독창성



(Unique)과 진정성(Originality)을 우선으로 하는 BIB는 비록 조용하고 더디더라도 진정 나만의 그림책을 탐구하고 실험하고 싶은 저와 같은 그림책 작가에게는 큰 위로이며 지침이 될 것입니다.

---

이상은, BIB 2013년 심사 경위 보고로써, BIB 2013 심사위원이자 2011년 그랑프리 수상자인 조은영 작가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